

#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 무주군, 취약계층 대상 전기·도시가스요금 등 지원

무주군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 주민들로 요금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 방문해 일괄 신청을 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2만2,5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취사·난방용 1,680원~최대 2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4,000원, 이동

통신요금은 월 최대 1만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주거급여의 경우 취사·난방용 840원~최대 1만2,000원, 교육급여는 취사·난방용 420원~최대 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월 최대 2,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만 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부인 부담경감, 한부모가족 모두 840원~최대 1만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에 한해 TV수신료가 면제되며 1~3급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도시가스요금(1~3급 장애인에 한함)

은 1,680원~2만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송재평 담당은 "요금감면 대상자인데도 감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괄 서비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한전콜센터(전기요금/국번없이 123, 핸드폰은 지역번호+123)와 도시가스사,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이동통신요금/핸드폰 114), KBS수신료 콜센터(TV수신료/1588-180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서 2년 연속 선정

완주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 지역복지사업평가(복지전달체계 개편부문)'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완주군은 1300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19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사회복지분야에 뛰어난 실적을 거둔 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평가지표다.

완주군은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과 관련, 2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사업비 1억9000만 원을 지원받아 800여명의 장애인에게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간활동 및 아간사회 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과 집수리, 생크대교체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서비스

민족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복지전달체계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의 2관왕과 330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사업기간 중 개인의 욕구에 대응한 발빠른 민관 협업체제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온 결과"라며 "향후에도 복지제감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군, SNS홍보 역량강화교육 실시

### 직원 스마트폰 활용능력 강화 사진작가 김민수씨 초청 강연

무주군은 19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의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키우고 군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실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분청을 비롯한 읍면 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폰 사진작가 김민수 씨가 "스마트폰 사진 잘 찍고 SNS 잘하기"라는 주제로 △일상을 예술로 표현하기, △사진을 활용해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과 기술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김 작가는 △쉬운 구도로 사진을 찍어 보기에 하는 방법을 비롯해 △카메라보다 사진에 욕심을 가져라 △사진은 뽀샵(비움의 미학)이다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는 마음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라 △카메라 줄인 기능 대신 대상에 다가서



무주군은 19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스마트폰 사진작가 김민수 씨 초청 공직자를 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는 '발품발춤(걸어서 대상을 만나라)'이 최고 △과하지 않은 보정으로 완성도를 높여라라는 내용 등도 강조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사진은 특별한 날, 필요할 때만 찍는 생각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내 일상도 특별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일상을 보다 재밌게, 업무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흙 건축학교 졸업식 개최

주민들의 흙 건축 기술습양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흙건축학교 4기 졸업식이 이날 17일 완주군청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국흙건축학교 김순웅 학장과 졸업생 14명을 포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완주군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중학생 2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은 "흙 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흙건축 기술을 보급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너지 자립형 주거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강자에 대해서는 학습동아리와 연계해 지속적인 학습활동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전문 기능 연마자의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흙건축학교는 유네스코 석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완주군과 사단법인 한국흙건축연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진장소방서, 논·밭 주변 소각 시 119신고 의무 홍보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소각함에 있어 119상황실 및 관할 소방서에 신고 의무를 홍보에 나섰다.

전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등) 개정 사항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추가 되어 위법령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출동하게 한 사람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 되므로, 소각행위 시 일시와 장소 및 사유등을 119에 신고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산불 및 들불 화재 312건이 중 사망 3명, 부상 5명, 재산피해 3억3,067만9,000원 발생하였으며, 오인출동 2,705건이 발생하여 무진장소방서는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해 각종 소방안전 교육 시 조례 개정사항 홍보와 마

을회관 방송을 실시했다.

조용주 서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고인은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기등을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등의 입회하여 마을 단위로 공동 소각 후 잔불 확인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 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선관위, 온라인투표 서비스 지원

### 적상초 학생회장선거, PC·스마트폰 이용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19일 무주적상초등학교 학생회장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지원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온라인투표는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유권자(학생)가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학교 및 공동주택 선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투표시스템이다.

무주선관위는 온라인투표가 정

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내 공공기관, 학교 및 사회단체 등에서 많이 활용돼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투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서비스 홈페이지(<http://kvot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관광사진 공모전' 특별전시회

### 내년 3월까지 역사박물관서

진안군은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사진을 활용해 전국에 진안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진안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당선된 수상작들을 20일부터 내년도 3월 20일까지 역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마이산, 구봉산, 백운동계곡, 우일안반일안 등 주요명소와 일원장 꽃잔디축제, 동향 수박축제 등 각종 축제, 지역특산품인 인삼밭, 홍삼 등을 테마로 한 자유작품을 공모 분야로 하여 지난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총 435점이 접

수돼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지난 10월 21일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오름1실에서 수상자 11명을 초청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1주일간 전시회를 열었다.

수상작들은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69점(총80점)으로 내년도 3월말까지 진안역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전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국에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회에 진안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계남면, 이웃돕기 손길 줄 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장수군 계남면에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행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전주연탄은행 소망봉사단(단장 이규탁)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전기장판 20개, 양말 250개를 계남면에 기탁했다.

같은 날 이영근(계남면 화음리)씨 백미100포(20kg), 계남면신교회 백미 40포(20kg), 계남면자유방재단(단장 정대석) 백미27포(20kg)를 기탁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또, 이창근(계남면 이장협의회장)씨는 관내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연탄 1,200장을 19일 계남면에 기탁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박현식 계남면장은 "매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기탁자께 감사드리며, 기탁 받은 성품은 마을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계남면 노인회장(김정수)은"연말을 맞이해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계남면은 기탁 받은 전기장판과 백미 등을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립돌리소

### 진안군, 국가예산확보 본격 추진

진안군은 19일 실과소장을 비롯한 주무담당과 주요사업 담당 및 담당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악초타운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발굴한 118개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타당성 논리 개발 등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각 사업별로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컨설팅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업무역량을 높이고 국가예산확보 능력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등기 촉탁 서비스로 6600여만원 군민부담액 절감

장수군은 올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1,352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등기비용 등 6천 6백여만 원의 군민부담액을 덜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登記委託) 서비스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에 변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에 대해 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다. 민원인이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촉탁을 할 경우 건당 4만5,000원의 비용이 들지만 군에서 직접 무료로 대행해줌으로써 시간절약 및 경제적 부담 감소로 큰 효용을 얻고 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소유자의 신청 없이 누락된 토지표시변경 건에 대해 수시로 등기촉탁을 의뢰해 토지대장과 등기부간의 불일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이동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원과 지적팀(350-2261)로 신청하시면 즉시 대행해 줄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수질관리위, 회의 개최

진안군 수질관리위원회(위원장 임경환)는 19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진안군민의 노력을 일리고 효과적인 수질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수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용담호 및 유입하천에 대한 수질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임경환 위원장은 "용담호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앞으로도 용담호 상수원 수질자율관리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주민의식이 향상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항로 군수는 "용담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도 1급수로 수질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수질을 지켜내기 위한 자발적인 군민 노력의 결과"라며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진안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경천면 오복 경로당 준공

완주군 경천면 오복마을 경로당이 19일 준공됐다.

이날 김홍기 부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번에 준공된 오복경로당은 연면적 196㎡(58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로 마을 어르신들이 여가 문화활동과 건강관리, 편안한 쉼터로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기 완주부군수는 "경로당 준공을 축하하며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화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주민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마을 문 모(82) 어르신은 "그동안 낡고 좁은 경로당에서 식사, 여가프로그램 진행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며 기쁨을 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